

지역 소식통

동진농어촌공, 수질환경 보전회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27일 지사 회의실에서 양질의 농업용수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및 수혜지역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2017년도 수질환경 보전회를 개최했다고 하였다.

수질환경보전회 구성 위원으로는 강병진 도의원, 선강식 김제시 건설과장, 농제, 백산제, 금평제, 대화제, 선암제 수혜지역 농업인 등 대표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날 위촉식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질환경 보전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질관리에 대하여 고민하고 직접 오염감시 활동을 전개·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수질개선훈련을 수립하여 농업용수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 대형교통사고 예방활동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휴가철 대형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김제경찰서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 부안군 지역의 유명 관광지인 교동의 중심지로 매년 휴가철에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이에 김제경찰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동참을 위해 후신교차로 등 주요 이동로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으며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 2회 이상 음주일제 단속, 신호위반 등 교통 3대반칙 근절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초 교통수단인 이륜차 안전모 착용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활동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7년 7월 현재 교통사망사고 발생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41.7%)이 감소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 해충방지 소독 진행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27일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대장 최경국) 12명과 함께 관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충망 모기장 설치 및 해충방지 소독작업을 진행하였다.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는 2016년 7월에 처음 발대식을 가진 후 봄, 가을 농번기를 제외한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원봉사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경제적 부담으로 냉방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충망 및 모기장 설치, 해충방지 소독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지역 농작물피해 급증

갈색날개매미충 등 대책 마련 시급... 행정 미흡에 '농민 원성' 고조

완주군지역에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돌발해충 특성상 산림과 농작물 동시방제가 신속히 필요한데도 완주군 집행부는 물론, 담당부서의 협업 부족과 업무소홀로 애초는 피해주민들만 망연자실해 있다.

이에 전 행정력을 동원,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농민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산너벌레, 꽃매미 등이며,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돌발해충은 5월부터 앞서서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해 가지를 고사시키고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으름병 피해를 준다.

실제 이들 돌발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현재 완주군지역, 특히 고산 6개면 산립 활엽수와 농경지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며, 그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정수군, 김제시 등 전북 시·군 지역에서는 돌발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2달여 전부터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돌발해충 제거를 위해 연구 끝에 트랩 식물인 해바라기 묘목 11,000본을 지난 5월 피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선제 대응으로 피해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들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산림축산과 농기센터, 읍면 협업으로 공동방제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형식적인 방제에 그쳐, 돌발해충으로 인한 작물피해가 갈수록 확산 추세에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담당부서나 완주군은 업무소홀로 인해 제대로 된 방제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높



완주군지역에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 S씨는 "고산 6개면의 경우 피해 작물이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의 대책이 시급한데 기관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5월 하순과 6월 중순, 7월 중에 1,2차 방제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예방 및 읍면 공동방제 강화로 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탄탄'

지역에 맞는 순환형 경제·일자리 창출 기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탄탄히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에 맞는 순환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136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83개를 비롯해 사회적기업 6개, 마을기업 11개, 마을공동체 34개, 중간조직 2개 등이다.

특히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종사하는 일자리는 시간제 포함 1,640여 개로, 웬만한 중견기업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중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완주한우협동조합은 각각 62명, 41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두 협동조합의 연매출 합계는 2016년 기준 340여 억원으로, 새로운 소득창출과 사회적경제의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상태다.

아울러 완주군 경천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제너럴바이오는 84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기

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중심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령식 공동체협력과장은 "대기업 유치로 인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자생적 경제의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상태다. 아울러 완주군 경천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제너럴바이오의 84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기

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실시

김제시보건소, '세계모유수유주간' 맞아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매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지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이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6일에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및 금산사 일원에서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모유는 영아 성장을 위해 정서적 안정감 및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예방 및 두뇌 발달을 돕는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모의 산후회복 및 유방암, 난소암 등을 예방하여 엄마와 아기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모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김제시보건소는 매 분기 임신부 출산준비교실을 통해 모유수유 실천을 돕고 있으며 상시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여 수유 상담과 유축기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국제모유수유강사를 초빙 모유수유 실제 배워보기, 유방 통증관리, 올바른 젖 물리기와 젖에서 떼어내는 방법, 모유양을 늘려주는 방법 등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시 보건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모의 산후회복 및 유방암, 난소암 등을 예방하여 엄마와 아기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분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초록우산, 국악오케스트라 업무 협약

완주군에 어린이 국악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진다.

27일 완주군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북후원회장 서거석), 전통문화마을(이사장 김진형)과 '1S와 함께하는 초록우산 드림 국악오케스트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초등학교로 구성된 드림국악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아동모집과 교육장소를 제공하며, 초록우산은 1S후원금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통문화마을은 전문 강사진을 연계해 교육을 맡게 된다. 사업비는 총 2억4,800만원으로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군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

지의 학생 총 50명의 선발을 마쳤으며, 이들 학생들은 앞으로 가리금, 거문고, 아쟁, 대금, 해금, 피리 등 총 15종의 악기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

내달 5일 첫 교육을 시작하며 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연습에 임하게 된다. 국악오케스트라의 창단식은 오는 26일 문예회관에서 개최되고, 이들의 첫 공연은 내년 초록우산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열릴 계획이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전쟁고아 구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후천 김제 부시장, 시정현안 챙기기 '분주'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이 지난 25일 부터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구 등을 방문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시정현안 챙기기에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시장은 김제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야구 전용구장과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현장, 새만금, 벽골제, 지평선산업단지, 백구특장차전문단지 등 시정현안사업 현장과 금구 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위험지구 정비현장 총 13개소를 4일만에 걸쳐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져 있음을 강조하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신속한 시정현안 파악을 위해 부임하자마자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18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방문과 민생현장 방문 그리고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까지 시민이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 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